https://doi.org/10.14400/JDC.2017.15.5.453

체육계열 4학년 학생의 취업준비행동 분석

최진호
동덕여자대학교

A Study on Employment Preparation of Graduating Senior in the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Jin-Ho Choi
Dept. of Physical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를 중심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을 되짚어 전략적인 취업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경기, 서울,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5개 대학 체육계열학과 164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에 따른 기술통계, 빈도분석, 독립표본 평균 t-검증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은 교내 취업프로그램에 낮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과 적성검사에만 50% 정도의 참여경험을 나타냈다. 대학교육과 진로관련 지원에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취업시설과 복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공과 관련한 국가전문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는 실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육계열학과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취업준비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 취업준비행동, 취업교육 및 진로지원, 전공 자격증, 청년고용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rying to figure out the effective employment guidance plan through employment preparation of graduating senior in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and recent situation. This study was compared to 2013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were collected from 164 graduating seniors in the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from 5 institutions of a 4-year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Seoul, and ChungChong-do by convenience sampling. For the data analysis, a descriptive statistic, frequency analysis, and one-samples t-test were conducted. Graduating seniors participating in school employment programs had a lower rate but the average rate of participation in career & employment classes and vocational test was more than 50%. They were satisfied with university education and career support but employment program and welfare facilities are in need of improvement. Furthermore, graduating seniors have national and private certificates related to major. Finally, they have very low participation rates in youth employment policies of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ive job placement guideline for the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is needed.

Key Words : Graduating senior, Employment preparation, Employment education & Career support, Major certificate, Youth employment policies

* 이 논문은 2016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nt)
Received 11 March 2017, Revised 5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Jin-Ho Choi
(Dongduk Women's University)
Email: gocjh98@dongduk.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은 최근 3년 동안 청년 실업률이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들 중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 6개국에 포함된다[1]. 이 현실은 통계청의 '2016년 12월 고용동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2016년 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5~29세(2만 2천명, 11.8%), 30대(1만 6천명, 9.9%)에서 증가하였다"[2]. 이는 한국 청년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한 국가정책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실업률의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대졸이상 실업자가 5만 1천명(13.9%)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고졸 실업자(4만 4천명, -10.9%)와 중졸이하 실업자(7천명, -7.6%)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2].

2016년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보면 전문 대학교를 포함하여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77.3%로 높은 수준에 달하나[3], 대졸자의 실업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졸자들은 희망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고사하고 단지 취업의 기회만을 위한 구직활동으로 개인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로 그나마 취업을 하고 있다[4].

체육계열의 경우 2014년 전문대학 학생 수는 2만 2백명 정도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전년에 비해 학과는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4년제 대학교는 2014년 학생 수가 7만 7천명으로 이 역시 전년도 대비 약 1천 2백 명 감소하였다[5]. 이는 체육계열의 취업난으로 인한 자체 정원감축과 학과폐지 및 통폐합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5].

김태기, 이영대, 이종훈, 류장수[6]는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몇몇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성장의 저하로 인해 고용창출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고도화된 산업구조로 이루어진 IT 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로 기업들은 경력자를 선호하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은 기업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원인으로는 대졸이상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에서의 채용율이 감소했다. 이는 고학력 실업자를 점점 더 생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의 직무능력과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의 불일치로 구인자의 채용의지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원하는 보수와 맹목적인 희망 직종에 대한 비현실적인 직업관 또한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졸자들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몸소 절실히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 신입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입학 전부터 학과 졸업 후 취업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7].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들은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교내· 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취업정보를 얻고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애쓰고 있다[8, 9].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활동으로는 '취업프로그램소개', '상담', '채용정보제공', '취업 자료실 운영', '취업게시판 및 사이트', '직무적성검사', '산학협력' 등이 있으며, 학생의 자발적인 준비활동은 "전공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인턴십, 어학연수, 박람회 참석, 면접활동,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탐색" 등이다[4].

또한 대학생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취업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10]. 박지윤과 김병주[11]는 대구·경북 지역 소재 720명의 대학생 중 46.9%가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연간 약 13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절체절명의 취업난 속에서 이처럼 대학생들은 직업의 기회를 얻고자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많은 투자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이러한 투자와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방안과 실행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4].

이러한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최근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마련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하였다[12]. 이러한 표준을 바탕으로 대학들은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그에 맞는 취업프로그램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13]. 또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취업활동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 유무와 정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14].

그러나 기존 취업준비활동 연구는 인구통계학적변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과 취업성공과의 관련성을 조사[15]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취업활동참여를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4]은 대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재학 중 참여하고 경험했던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하여 취업의 성공요인을 예측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전공별 취업준비행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약점을 드러냈다. 좀 더 구체적인 취업준비행동 조사를 위해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13]은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을 통해 취업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이영민과 임정연[15]은 예체능의 경우 진로이동과 전공의 특수성으로 다른 전공학생들과는 접근 과정이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13]의 연구를 참고로 예체능 전공분야 중 현재 체육계열학과 4학년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16]와 현재 4학년 체육계열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취업활동을 비교 조사하여 체육계열학생들의 취업성공을 위한 준비행동을 예측하고 그러한 취업준비행동을 전략적으로 지도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계열 졸업준비생의 취업준비행동의 참여유무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에서의 교육과 진로관련 지원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체육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상황과 목적은 무엇인가?

넷째, 정부가 추진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16]를 활용하여 2014년 대학졸업 후 취업 성공 자들의 재학 중 취업준비행동을 확인하고 2017년 4년제 대학 체육계열 졸업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실태를 파악·비교해 보았다.

이 연구는 경기, 서울,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5개 대학교의 체육계열학과 164명의 졸업예정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2 설문도구 및 자료분석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한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GOMS)'를 이 연구의 설문도구로 이용하였다.

SPSS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응답문항들에 대해 기술 통계분석, 빈도분석, 독립표본 평균 t-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취업준비행동 비교분석결과

<Table 1> Participation of employment program

Career choice		Graduating senior	2013GOMS
Career & employment classes	Yes	52.4%	47.3%
	No	41.5%	
	Missing	6.1%	
Job experience program(including internship)	Yes	17.7%	23.5%
	No	75.6%	
	Missing	6.7%	
Vocational test	Yes	51.8%	50.9%
	No	42.7%	
	Missing	5.5%	
Campus job fair	Yes	34.1%	32.5%
	No	61.6%	
	Missing	4.3%	
Career individual & group counseling	Yes	36.0%	32.2%
	No	57.9%	
	Missing	6.1%	
Interview & CV program	Yes	29.3%	37.1%
	No	64.0%	
	Missing	6.7%	
Job camp	Yes	7.9%	15.8%
	No	84.8%	
	Missing	7.3%	
Other	Yes	75.6%	
	No	.6%	
	Missing	23.8%	

<Table 1>의 대학 재학 중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따르면, 4학년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은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에 52.4%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대졸취업자들은 47.3% 참여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 '인턴 포함, 직장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은 17.7%가 경험하였으며, 2013년 대졸취업자들은 23.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심리검사'는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이 51.8%, 2013년 대졸취업자들이 50.9% 참여하였다. '교내 취업박람회'의 경우,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이 34.1%, 2013년 대졸취업자들이 32.5% 참여하였다.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이 36%, 2013년 대졸취업자들이 32.2%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는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이 29.3%, 2013년 대졸취업자들이 37.1%로 나타났다. '취업캠프'의 경우,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은 7.9%, 2013년 대졸취업자들은 15.8%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의 75.6%가 '그 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교육 및 진로지원 만족도

<Table 2> Satisfaction of education

	Graduating senior					2013 GOMS Mean
	n	Mean	SD	DF	t (two-tailed)	
Educational facilities	163	3.37	.81	162	5.90***	3.42
Welfare facilities	164	3.07	.91	163	.94	3.32
Support system	162	3.33	.94	161	4.40***	3.43
Career counseling & support system	164	3.05	.88	163	.80	3.26
Career classes	164	3.22	1.0	163	2.80**	3.37
Teaching ability & enthusiasm	163	3.42	1.07	162	5.07***	3.51
Teaching quality	164	3.29	.96	163	3.91***	3.43
Major satisfaction	164	3.40	.96	163	5.27***	
School satisfaction	164	3.39	.91	163	5.49***	

**p<.01, ***p<.001

4학년 체육계열 졸업대상자의 현재 대학교육과 진로 관련 지원 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교육시설'(M=3.37, SD=.81, t=5.90, p=.000), '학생지원제도'(M=3.33, SD=.94, t=4.40, p=.000), '전공 교과과정 및 내용'(M=3.22, SD=1.0, t=2.80, p=.006),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M=3.42, SD=1.07, t=5.07, p=.000), '수업의 방식 및 질'(M=3.29, SD=.96, t=3.91, p=.000),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M=3.40, SD=.96, t=5.27, p=.000),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M=3.39, SD=.91, t=5.49, p=.000)은 1(매우 불만족)~5(매우만족)의 Likert-5 척도에서 3(보통)보다는 통계학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복지 시설'(M=3.07, SD=.91, t=.94, p=.349)과,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M=3.05, SD=.88, t=.80, p=.426)는 3(보통)보다 통계학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었다.

3.3 자격증 취득상황 및 목적

<Table 3> Certificate possession

		Graduating senior	2013 GOMS
Certificate	Yes	76.8%	61.9%
	No	22.0%	38.1%
	Missing	1.2%	
Number of Certificate	Mean	4.4	1.9
	Missing	40	
Type of Certificate (multiple responses)	National certificate	63.3%	
	National technique	30.8%	
	Private certificate	65.0%	
	Foreign certificate	5.0%	

4학년 체육계열 졸업대상 응답자의 76.8%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4.4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2013년 대졸취업자들 중에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61.9%, 평균 1.9개의 자격증 취득한 수치보다는 다소 높았다. 특히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이 취득한 자격증 유형 중에서 '민간자격증'(65.0%)과 '국가전문자격증'(63.3%)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복수 응답했다.

<Table 4> Purpose of certificate

	Graduating senior (multiple responses)	2013 GOMS
Employment	60.2%	63.4%
Foundation	0.8%	0.8%
Promotion	1.5%	0.2%
Turnover	0%	0.1%
Certificate allowance	2.3%	0.2%
Task relation	6.8%	4.2%

자격증을 취득한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복수 응답 질문에는 취업이 60.2%로 가장 주목적 이였으며, 자기개발 47.4%, 졸업 16.5% 순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 대졸취업자들도 취업이 63.4%, 자기개발 22.7%, 졸업 4.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5> Help & relevance of certificate

	Graduating senior				
	n	Mean	SD	DF	t (two- tailed)
Help on main purpose	131	3.65	.77	130	9.60***
Major relevance	130	4.02	1.09	129	10.67***

***p<.001

<Table 5>는 자격증 취득 목적의 도움정도와 대학전공 관련성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4학년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은 취득한 자격증이 취득의 주된 목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1(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5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의 Likert-5 척도에서 3(보통일 것이다)보다 높은 긍정적인 대답을 나타냈다(M=3.65, SD=.77, t=9.60, p=.000).

또한 취득한 자격증이 대학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1(전혀 관련성이 없다)~5(매우 관련이 있다)의 Likert-5 척도에서 3(보통이다)보다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M=4.02, SD=1.09, t=10.67, p=.000).

3.4 청년고용정책 경험

<Table 6>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 정책들에 대해 4학년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에서 50%이상이 '들어본 적'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훈련비 지원' 정책에서만 48.2%가 '들어본 적'있다고 하였다. 관심유무 부분에서도 모든 정책들에서 60%이상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참여경험의 유무에서는 모든 정책들에서 25%이하의 상당히 저조한 참여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해외진출'은 6.1%, '공공일자리'는 8.5%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4. 논의

우선 대학 재학 중 취업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대해 2013년도 대졸취업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4학년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은 '인턴 포함 직장체험프로그램',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에서 2013년 대졸취업자들보다 비율상 낮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학년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의 취업프로그램 참여비율은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13]의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결과와는 높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예체능계열(디자인, 공예사진만화,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졸업생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연구의 체육계열 졸업대상자들보다는 모든 취업프로그램에서 절반도 안 되는 참여율을 보였다. 무용체육도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긴 하지만 무용과 체육이 독립적인 학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공으로 간주하여 파악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체육계열학과에 포함되는 전공들은 '스포츠'나 '체육'의 용어가 포함되어 구성된 학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육계열학과에 주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예체능대학과 같이 단과대학별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다.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은 대학교육과 진로관련 지원에 대체적으로 보통이상의 만족스러움을 나타났다. '학생복지 시설'과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는

<Table 6> Youth employment policies

	Have heard			Atten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Yes	No	Miss.	Yes	No	Miss.	Yes	No	Miss.
Job career counseling	67.7%	26.2%	6.1%	68.9%	22.6%	8.5%	23.8%	67.7%	8.5%
Training expense support	48.2%	45.7%	6.1%	66.5%	25.0%	8.5%	12.2%	76.8%	11.0%

통계학적으로 보통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도 대졸취업자들이 인지했던 만족도 보다는 수치상으로 다소 낮은 평균값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제공되는 학교의 진로교육 및 지원 시스템이 일반전공학생들에게 맞추어져 있어 체육계열학과의 진로특성에 부합되지 못하여 초래된 결과일 수도 있다[17, 18]. 따라서 각 학과별로 그 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19].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상황과 목적을 유추해 보면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은 2013년 대졸취업자보다 자격증 취득률이 높았다. 또한 평균 자격증 취득 개수비율도 2013년 대졸취업자들보다 두 대 이상으로 높았다.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은 주로 민간자격증과 국가전문자격증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에 대한 원인들 중에 하나로 체육계열 분야의 상대적 일자리 부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취업분야가 일반전공자를 대상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체육계열전공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육계열전공자들의 의지와 절실함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목적은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과 2013년 대졸취업자가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이 자격증 취득의 주목적 이였으며 '자기개발'과 '졸업'이 그 다음의 목적 이였다. 취업희망자의 공통된 의도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은 취득한 자격증이 향후 '취업', '자기개발', '졸업'등에 보통이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취득한 자격증이 개인의 전공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큼 전공의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대졸취업자들도 자격증 도움정도에 대해 '보통'과 '대체로 도움'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6].

마지막으로,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꽤 높은 비율이 들어보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책 참여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 정보를 잃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 취업 실패에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취업정책에 재학생 및 졸업대상자의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학교와 학과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의 취업과 관련한 준비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지도방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졸업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추적 조사한 '2013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13]를 비교대상으로 정했다.

첫째,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은 현재 교내 취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진로 및 취업 관련교과목과 적성검사는 50% 정도의 참여경험을 보였지만 다른 취업프로그램에는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체육계열 전공의 전문성에 맞는 교내 취업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학과차원에서도 전공에 부합하는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둘째, 대학교육과 진로관련 지원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프로그램을 위한 물리적 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며 더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정보 제공이 요구된다[20, 21].

셋째, 상당수의 많은 졸업대상자들이 전공과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격증의 실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자격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스포츠단체 및 협회 그리고 기업들의 자격증 인식과 적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참여는 저조하였다.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성공의 확률을 높인다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학교와 학과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nt.

REFERENCES

[1] DOI: http://news.donga.com/3/all/20170213/82834336/1.2017.02.13

[2] Statistics Korea, 'December 2016 Employment Trend', Press Material, 2017.

[3] Dongbuk Regional Statistics Office, '2016 Gyeongbuk Youth Statistics', Press Material, 2016.

[4] Young-Min, Lee, Soo-Young Lee & Jung-Yeon Lim,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llege graduates' entering of preferred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ir job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53, No. 1, pp. 337-374, 2014.

[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Sport White Paper', Published Material, 2015.

[6] Tae-Gi Kim, Yeong-Dae Lee, Jong-Hun Lee & Jang-Su Ryoo, "Employment situation and policy issues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Research Institution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05.

[7] Mi-Hee H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preparation capacity and stress from college lif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7, No. 1, pp. 81-86, 2017.

[8] Seung-Chul Kim & Hye-Young Moon,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nfluence factors for career decision making by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 29, No. 3, pp. 1-17, 2014.

[9] Ji-Sun Jung & Hoon-Ho Kim, "Analysis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18, No. 3, pp. 89-122, 2009.

[10] Seo-Yeon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15-122, 2016.

[11] Ji-Yun Park & Byoung-Joo Kim, "Analysis on the differences in the participation and cost of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21, No. 1, pp. 285-308, 2012.

[12] DOI: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2017.02.17.

[13] Young-Min, Lee, Soo-Young Lee & Jung-Yeon Lim, "An analysis for art, music, sports and dance graduates' school-to-work transition prepar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52, No. 1, pp. 1-28. 2013.

[14] Goo-Mook, Chai,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new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9, No. 4, pp. 35-61, 2007.

[15] Young-Min, Lee & Jung-Yeon Lim, " Identifying the determinant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graduates' entrance to graduate school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14, No. 3, pp. 233-258, 2011.

[16] Jong-Gak Shin, Seong-Jae Lee, Ji-Min Lee & Seon-yeon Park, "2013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5.

[17] Mi-Suk Kim, Bok-Yeon Kim & Jin-ho Choi, "The relationship among dropout, organizational trust, and intention to transfer in the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453-463, 2016.

[18] Eun-hwi Kim, "A Convergence study about influences of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on job satisfaction o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7, No. 5, pp. 107-116, 2016.

[19] Kyoung-Lan Choi, Seong-Eun Heo, Deog-Hwan Moon,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stress of shift work nurses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107-121, 2016.

[20] Jin-Ho Choi, "Departmental trust on departmental develop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and demographic differences in the department affil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467-475, 2016

[21] Joo-Wook Yi, Dong-Soo Han & Dae-Hyun Yun, "Crisis at universities and the practical issues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related departm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427-436.

최 진 호(Choi, Jin Ho)

- 1998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체육과(학사)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석사)
- 2006년 5월 : Texas A&M University 스포츠경영(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부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조직행동, 스포츠 리더십, 스포츠 행정
- E-Mail : gocjh98@dongduk.ac.kr